

경사대본

장애인먼저
충청북도

2019 회계년도

결산 감사 보고서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감 사 보 고 서

감 사 개 요

- 감사구분 :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감사
- 기 간 : 2020. 2. 6.(목) 10:30
- 장 소 : 충북체육회관 4층 중회의실
- 감사내용 : 불임과 같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제76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감사하였기에 보고 합니다.

감 사 자 : 조 용 주 (조명주)

장 종 훈 (장종훈)

결산 감사 보고서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제76조 1항에 의거,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9년도 결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감사 결과는 사업부문과 회계부문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부문보고입니다.

주요사업인 조직정비 및 체계화와 전문체육 육성지원, 국·내외 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 장애인생활체육 저변확대, 충청북도장애인도민
체육대회, 장애인운동선수 취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체육회 조직정비 및 체계화에서

-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관련규정 개정에 따르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구 등으로 제 규정 총 10건을 개정과 제정 하였고,
- 충북장애인양궁협회, 파크골프협회, 조정연맹 3개 경기단체가 가맹
탈퇴 하였습니다.
- 시·군 지부는 총 10개 시군으로 단양군의 지부설립이 남아있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전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임지도자 8명 배치와 전국장애인(동·하계)
체육대회를 대비한 훈련기간 동안 14명의 단기지도자 배치로 강화
훈련을 실시하여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 우수선수 육성 지원과 종목별 3차에 걸친 훈련비 지원, 포상금 지급
등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켜 제39회 전국장애
인체육대회 종합 3위와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종합 우승의
쾌거를 올린 뜻깊은 한해로 평가됩니다.

○ 국내·외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으로

-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6개 종목 595명(선수 423명, 임원 172명)이 출전하여 금 94, 은 91, 동 62개로 종합점수 139,552점을 당당히 획득하여 종합3위를 차지했습니다.
- 6관왕 1명, 5관왕 1명, 4관왕 2명, 3관왕 17명과 2관왕 13명을 배출하였으며, 대회신기록 9개, 한국 신기록 36개를 수립해 충북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해 5월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한 제13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에 13개 종목 284명(선수 142, 임원 142)이 출전해 금 60, 은 48, 동 38개를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 종목별 전국대회에 20개 종목 52개 대회, 종목별 국제대회 3개 종목 6개 참가를 지원했으며, 국내외 13개 대회 입상포상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 2019년 충청북도지사배전국대회는 5개종목(수영, 론볼, 펜싱, 게이트볼, 당구)을 개최하였으며, 전국대회는 충주사과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볼링·골프 도대표 선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 장애인생활체육저변확대입니다.

-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종목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11개 대회 출전을 지원하였으며,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5개소, 어울림대회 13개 대회와 동호인클럽 49개를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활동으로 생활체육지도자 37명이 연 9,806개소에서 108,165명의 장애인생활체육 동호인을 지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도내 시군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장애인의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반면 대한장애인체육회 2019년도 생활체육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C등급을 받은 것은 평가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질책하며, C등급으로 인한 충북 생활체육 활성화의 불이익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확실한 변화를 촉구합니다.

○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입니다.**

- 지난해 9월 5일 ~ 6일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한 제13회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는 11개시·군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 운영규정 제정 후 첫 개최된 이번 대회는 역대 대회 중 가장 성공한 대회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하길 당부 드립니다.

○ **각종회의 개최에서는**

- 이사회 6회, 상임위원회 5회, 인사위원회 3회, 상벌위원회 1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등 기타회의 14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 **교육 및 연수에 있어서는**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상·하반기 역량강화교육 및 법정 의무 교육, 국고보조시스템 정산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충북 장애인체육 유공자 연수를 베트남 일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2019 충북장애인체육상 시상식에서는 2019년 충북장애인체육 발전분야 12개 부문 48명 유공자를 시상하였습니다.

○ **장애인운동선수 취업관련으로는**

- 장애인고용공단과의 장애인 운동선수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이후 2019년 에코프로 23명 장애인스포츠단 창단에 이어 한화큐셀 7개 종목 30명 장애인스포츠단 창단 등 2019년까지 총 80명이 장애인운동 선수로 취업 하였습니다.
- 체육회는 계속적으로 장애인운동선수 취업을 주선하여 선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동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들의 장애인 체육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애인운동선수 취업에 만전을 기해주길 주문합니다.

□ 회계부문보고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 세입은 예산액 5,404,322,000원 중

보조금인	도비	4,800,662,000원
	기금	대한장애인체육회 483,684,000원
		문화체육관광부 73,576,000원
세외수입인	충북지역개발회	15,000,000원
	장애인고용공단	29,400,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39,852원
	세입 결산액	5,403,261,852원

으로

- 세출은 세입액 5,403,261,852원 중 5,094,844,057원 집행하여 차인잔액은 308,417,795원입니다.

-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272,210,233원 및 이자세입 939,357원은 충청북도에 반납,
-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12,346,610원과 이자세입 43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반납,
-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잔액 22,921,100원 및 이자 452원은 2020년도 우수선수육성사업 특별회계로 이월하도록 하였습니다.

□ 종합의견

- 감사결과 각 분야에서 관련규정을 적절히 준수하여 사업계획의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예산편성과목에서 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감안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에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정산시점이 늦어져 반납금 확인 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단체 및 생활체육 사업장에 정산지침을 강화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사업에서 잔액의 발생이 많습니다. 각종 입찰구매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알뜰한 예산집행을 하였으나, 잔액발생에 따른 시정보완으로 예산 수립 시 산출기초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합니다.
 - 또한 2개의 사업 세목에서 과지출이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 시 잔액확인을 철저히 하여 편성된 예산이 과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양군의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계속하여 지연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도장애인체육회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1개의 경기단체와 2개의 관리단체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탈퇴 되었습니다.

도 장애인체육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시청의 제도개선 및 권고 시 규정 개·제정을 적기에 하여 체육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종합3위를 달성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역도종목은 29,630.2점을 획득하며 전국체전 9연패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이토록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충청북도와 가맹경기단체, 각 유관단체에서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선수단이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2017년 전국장애인체전 종합우승에 이어 2018년 종합2위, 2019년 종합 3위 달성의 원동력은 실업팀 운영과 우수선수 육성관리, 장애인 선수 직업 창출 등이 근간이라 생각되기에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인권 보호 등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길 당부합니다.

2020. 2. 6.

감사 : 조용주, 장종훈

